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노영훈 이선희 임소희 / 발행일 2014년 1월 8일 / 560-887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제27호

2014년 1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장재성 이사장

다시 갑오년입니다.

120년 전 음력 1월 10일 고부 농민들이 관아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농민 항쟁은 그 한 해 동안 계속되었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3월 21일 무장기포에 이어 4월 6일 황토현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고 5월 7일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맺어집니다. 9월 3일 농민군이 2차 봉기를 일으켜 일본군과 여러 곳에서 접전을 벌이고, 11월 8일에서 11일 사이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농민군이 패하여 남하하면서 주요 전투가 끝납니다.

그 결과 안으로 갑오개혁으로 일본군이 조선 궁궐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청과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고 동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여러 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조선은 누구에게도 어려운 나라 이야기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고, 일본이 동 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농민항쟁의 정신은 격문에서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으로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라고 하여 반봉건과 반제국주의를 주장한데서 잘 드러납니다. 썩어 빠진 봉건 정부를 타도하고 소코뚜레처럼 우리를 옥조이는 외세를 타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민중이 자주적으로 들고 일어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농민항쟁의 정신을 기리자는 것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농민항쟁의 정신을 잘 기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 농민 항쟁의 뜻을 기린다는 항목이 빠진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농민항쟁의 정신을 가벼이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60년 전인 1954년은 한국전쟁 직후였고, 독재정권 이승만 자유당의 행태로 봐서 농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요?

저는 농민군들이 품었을 변혁의 꿈, 변화의 바람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여건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으로 갑오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개혁은 누구에게 강요할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함께 이루는 것이 농민 항쟁의 뜻을 기리는 것입니다. 음력 5월 7일은 정부와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은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 변혁과 변화의 바람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를 가름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글 읽는순서



- 02 인사말-장재성 이사장
- 03 김장김치나눔 / 아름다운 섬 위도기행
- 04 이미영 이사 출판기념회
- 05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9,11 월)
- 06 신은철 선생님의 영화이야기(신의 소녀들)
- 07 신입회원 / 회원동정 / 김영춘 시집출판기념모임 / 송년모임
- 08 회원 가입 신청서

김장김치나눔



우리 문화원과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송곡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도농 교류 프로젝트로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12월 8일(일) 회원과 회원 가족, 청소년 등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33명이 참가하여 싱싱한 배추와 맛깔스런 양념으로 정성껏 김장을 담갔다. 마을 주민들이 마련해 주신 홍어삼합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김수웅 해설사님의 생생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동학혁명 전적지를 답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담근 김치통 50개 분량의 김장김치는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다.

아름다운 섬 위도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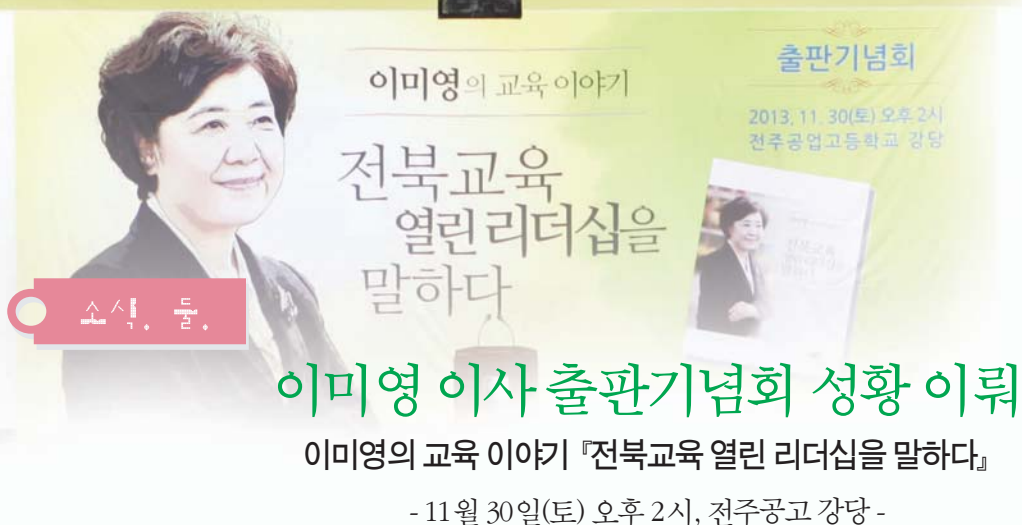
섬의 모양이 고슴도치를 닮아 그 이름도 위도(蝸島). 10월 9일 (수), 전북도청 남문 앞에서 우리 문화원 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위도로 떠났다.

격포에서 배로 40~50분을 가면 위도항에 닿는다. 항구에 들어서자 이 섬의 유일한 공용버스 한 대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구수한 말투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승객들을 인도하시는 기사아저씨 덕분에 여행이 더욱 즐거워졌다. 위도의 역사와 스킴머 지나가는 풍경에 대한 설명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해주셨다. 해안도로를 따라 섬을 도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곳곳마다 절경이었다.

점심으로 푸짐하고 싱싱한 회를 즐긴 후, 등산 팀과 걷기 팀으로 나누어 걸었다. 바닷가의 선선한 바람과 햇살이 좋아서 걷기 좋았다. 해안가와 들판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고, 아름다운 해안풍경 덕에 걷기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이미영 “전북교육 열린 리더십을 말하다” 출판기념회



이미영 이사 출판기념회 성황 이뤄

이미영의 교육 이야기 『전북교육 열린 리더십을 말하다』

- 11월 30일(토) 오후 2시, 전주공고 강당 -

우리 문화원 이미영 이사(전주공고, 전북농촌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출판기념회가 11월 30일(토) 오후 2시 전주공고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미영 전 이사장의 ‘이미영의 교육 이야기 『전북교육 열린 리더십을 말하다』(도서출판 참나무)’ 출판기념회에는 각 계각층에서 1,000여명이 참석해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이를 본 많은 관계자들이 상당한 조직력과 세를 보여준 출판기념회였다는 평을 하였다. 더구나 참석자의 면면으로 선생님의 인맥이 특정 세력이나 정파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폭넓음을 보여줬다.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에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셨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규채, 이경한, 김영기 공동대표,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윤애, 조선희 공동대표, 전북민연 김병직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전북겨레하나, 전북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지역농업연구원, 희망나눔재단,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6·15전북본부,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시민행동21, 전주YWCA 등 전북의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계에서 교육장, 각 대학 교수님들과 교육민주화운동 원로인 정해숙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리고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박상현 회장과 윤성이 전 회장을 비롯하여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전북학교급식운동본부, 전주공고학부모회, 전북학원연합회, 전북교육협의회, 여러 어린이집, 스포츠 강사 단체,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익산문해교육연구회 관계자와 학창시절 은사와 동창, 가족들, 체육계 인사, 언론인, 문화예술인, 종교인들과 기업 CEO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미영 교사는 저자 인사말에서 “최근 몇 년간 전북교육계의 이슈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 ‘도의회와의 엇박자’였다. 교육당국은 끝없는 교과부와 의 법리 논쟁과 감사, 그리고 도의회와의 명분싸움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아이들에 맞는 실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 전북의 산적한 교육과제인 고교입시, 도시 과밀학급, 농촌교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와 의 갈등 결과는 더욱 참혹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형편없이 적게 배정된 예산으로 내년도 전북교육 현장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비판하며, “교육개혁은 결코 조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 교육 가족은 물론 지자체,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질 높은 전북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013년 12월 이미영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미영 교사

만경강 따라 걷기

장재성 이사장



11월 걷기는 2일에 만경강 따라 송창우 선생님과 함께 걸었다. 송창우 선생님은 전주 전미동에 살면서 이리중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거나 때로는 걸으신단다. 자전거야 1시간이면 족할지 모르지만 걷는 것은 짐작이 잘 안 되었다. 아마도 퇴근길에 걷는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도 한 나절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여간에 우리는 삼례 비비정 마을의 비비정에서 만났다. 비비정에 오르면, 기러기가 날아가는 곳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만경강에서 쉬고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을 볼 수 있다. 만경강에 가까이 가면 전주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멀리서 보는 경관은 아름다웠다. 완주 8경으로 비비정을 꼽은 이유를 알겠다. 당국에서 만경강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비비정에서 만경강을 따라 죽 걸었다. 잠깐 가면 옛 전라선으로 쓰던 철교가 나온다. 지금은 복선이 바로 옆에 깔려 사용을 안 하는 철교지만 옛 명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끊겨진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다니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만경강을 따라 걷는 길은 특별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강 따라 걷는 길이다. 주변 풍광이 바뀌지 않아 다소 심심하다 싶는데, 송창우 선생님께서 가끔 간다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주셨다. 참 특별한 경험인데 민물 속에 존재하는 ‘독살’을 만났다.

전주에서 빠져 나온 만경강이 익산 목천포를 향해 가다가 익산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독살을 보았다. 강의 큰 흐름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물길을 막아서 독살을 두개 이상 만들었는데, 갈대숲이 우거진 강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작고 고요한 호수를 만날 수 있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숲속의 호수를 강바닥에서 만난 것이다. 호수 주변에 말뚝을 박고 손질한 것을 보면, 갈수기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지역 주민들이 만든 독살이 틀림없다. 더 재미있는 모습은 아버지는 물속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아이는 잡아 던지는 물고기를 주워 담는 광경이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으로 보기 힘든 구경거리였다.

익산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비비정으로 돌아왔다. 걷기를 마치고 점심은 비비정 농가 레스토랑에서 깔끔한 한정식을 함께 했다. 비비정 농가 레스토랑은 꼭 추천하고 싶은 식당이다.

군산(옥산) 저수지



9월 걷기는 7일에 옥산저수지를 찾았다. 옥산저수지는 군산저수지라고도 부르는데 군산의 수원지로 쓴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치가 잘 어우러져 사계절 경관이 빼어나다. 집중주거지역인 나운동, 지곡동에서 아주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름이 채 끝나기 전이라 수련을 비롯한 수생 식물들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눈이 오면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겨울에 다시 옥산 저수지를 찾기로 하였다.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점심은 전주에 일이 있는 참석자들을 위하여 전주로 와서 늦은 점심을 하였다.



왜, 하필 거기에 ‘사다리’가 있는 걸까?

-영화 ‘신의 소녀들’ -

신은철 (삼례중 교사)

영화를 본다는 것은 영화를 읽는다는 것이다.

영화를 읽는다는 것은 영화를 해석하는 것이고,

영화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영화 속에서 나를 본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나를 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아침에 환기를 하려고 창을 열었더니 작은 새 한 마리 새(新) 하늘과 더불어 교실 안으로 포르르 날아듭니다. 높고 찬 겨울바람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신열에 떠는 영혼을 고루 어루만지며 부르르 지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흥미있게 본 유럽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몬주의 ‘신의 소녀들 Beyond the Hills, 2012, 루마니아, 150분’입니다.

이 영화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두 소녀 알리나와 보이치타의 이야기입니다. 독일로 떠났던 알리나는 수도원에 있는 보이치타를 데려가기 위해 고향 루마니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수도원 생활에 익숙해진 보이치타는 수녀로서의 삶을 원하고 그런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알리나 또한 수도원에 머물게 됩니다. 보이치타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알리나는 수도원의 믿음과 규율 사이에서 점차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요…….

이 영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주제인 현대사회와 종교, 신의 부재와 구원 등과 관련해 이 수도원의 미장센에 주목하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영화 속 수도원 풍경입니다. 놓여있는 소재들을 눈여겨보면 성당, 십자가, 우물, 수레바퀴, 사다리, 계단 등이 보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잠깐 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지요.



영화속 수도원 장면

영화 속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가 주제와 연결이 되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걸어오지요. ‘여기에 왜 사다리(사진으로 잘 안 보이네요)가 있을까? 제 영화 읽기는 이런 식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속 ‘야콥의 사다리’(창세 28:10-22) 이야기는 제가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아무튼 신화의 열쇠로 영화를 보는 것이 제가 요즘 영화를 읽고 해석하는 한 비법(?)이지요.

유대교 신학자 헤셀(1907-1972)은 “참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시대에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지만, 그분이 숨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요. 올 겨울 이 영화를 보며 신이 있어야 할 곳에 신이 부재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과 평화로운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환영! 신입 회원(가입일 순)

송수경(남원수지중)
박진희(회사원)
임순일(김제봉남초)
양성호(전주비전대 군사학부)
오기종(이리초)

회원동지

▶ 새로 다섯 분이 우리 문화원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전북교육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김홍식(전 김제봉남중 교장) 회원 장남 민관군이 12월 14일(토) 전주전 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 윤양금 선생님(순창여중)께서 12.16(월)~12.28(토) 갤러리 '숨' 에서 열린 'CHRISTMAS HUG'전에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 전시하셨습니다.

김영춘 자문위원 시집 출판기념모임

우리 문화원 자문위원이신 김영춘 시인(전주술내고)이 1993년 첫 시집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푸른숲) 이후 이십년 만에 그동안의 삶을 담은 시 40여 편을 묶어 두 번째 시집 『나비의 사상』(작은숲)을 내셨다.

‘삶과 시가 일치하는 참 시인’ (정우식 원장), ‘시를 안 써도 시인’ (안도현)이라는 김영춘 선생님의 시편들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울림을 주는 언어들로 가득하다.

문화원에서는 소중한 삶의 장면들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분들이 시집 출간을 축하해주기 위해 10월 16일(수) 저녁 장수버섯전골(문화원 앞)에서 조출한 출판기념모임 자리를 마련하였다.



문화원 송년회

12월 13일(금) 저녁 6시, 만나식당에서 문화원 송년모임을 가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는 3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임동연 사무처장의 건배사 추천으로 분위기가 더욱 훈훈해졌고, 다 함께 2014년 갑오년 새해에 건강과 복을 받자는 건배를 몇 차례 외치고 송년모임을 마쳤다.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와 동흥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쪽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200구좌(매월 100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h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하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통장 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905-0218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회 원 (), 후원회원 ()		
직업 / 직장	담당업무(교과)		
직장전화	집 전화		
손전화			
E-mail 주소			
직장주소			
자택주소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월이체액	회비 1만원 + 후원금()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좌번호	(은행명)		

2014년 월 일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각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 시까지(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까지) 이용·보유하게 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 560-837 전주시 완산구 영경 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